

2008학년도 6월

그는 좋은 성품을 얻는 것을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비유한다. 그에 따르면, 리라(lyra)를 꺾으로써 리라를 켜는 법을 배우며 말을 탐으로써 말을 타는 법을 배운다. 어떤 기술을 얻고자 할 때 처음에는 교사의 지시대로 행동한다. 그리고 반복 연습을 통하여 그 행동이 점점 더 하기 쉽게 되고 마침내 제2의 천성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 진실되고** 관대하며 **㉡ 예의를 차리게** 되는지 일일이 배워야 한다. 훈련과 반복을 통하여 그런 행위들을 연마하다 보면 그것들을 점점 더 쉽게 하게 되고, 결국

1. ㉠의 의미는 결여되어 있으면서 ㉡의 의미는 들어 있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빈말 ② 너스레 ③ 생트집
- ④ 어깃장 ⑤ 인사치레

2008학년도 9월

이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관찰을 통해 어떤 사물에 대한 지식을 얻을 경우, 일반적으로 그러한 지식은 서로 다른 시점에서 획득한 자료들을 토대로 한다. 그러한 자료들은 관찰이 진행되면서 각각 특정 시점에서 사물의 속성들로부터 추상된 것들, 즉 의식 속에 기억으로 남아 있는 관념들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관념들은 시간의 제약 속에 있지 않으므로 변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최종 판단 시점에서서는 실제로 그 이전까지의 사물의 모든 속성들이 이미 변했음에도 **㉠ 불구하고** 그 속성들의 관념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우리의 사고는 바로 그러한 관념들을 종합하여 지식을 구성하게 된다.

2. ㉠의 어간 ‘불구하’ 는 일부 어미와만 결합한다. 이와 같은 용언이 아닌 것은?

- ① 송아지가 애처롭게 울었다.
- ② 허구한 날 팔자 한탄만 한다.
- ③ 친구의 집은 막다른 골목에 있다.
- ④ 나는 서슴지 않고 계단을 따라 올라갔다.
- ⑤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을 잘 알고 있다.

2008학년도 수능

촉매는 마법의 돌이라고도 불린다. 화학 공정을 통하여 저렴하고 풍부한 원료로부터 원하는 물질을 제조하고자 할 때,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가 낮은 새로운 반응 경로를 제공하여 마치 마술처럼 원하는 반응이 쉽게 일어나도록 **㉠ 돕기** 때문이다. 제1차 세계 대전 직전에 수소와 질소로부터 암모니아의 합성을 가능하게 하여 식량 증산에 크게 기여하였던 철 촉매에서부터 최근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데 사용되는 백금 촉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촉매가 의식주, 에너지, 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의 핵심 기술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공업용 촉매 개발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다가 요행히 촉매를 발견하는 식이었기 때문에 ‘촉매가 보였다’고 말하기도 한다.

3. ㉠와 관련하여 ‘돕다’ 가 쓰인 다양한 예문을 찾아보았다. 각 예문에 쓰인 ‘돕다’ 의 유의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문	유의어
①	수재 의견금을 내서 수재민을 도왔다.	구명하다
②	임금님을 도와 좋은 나라를 만들었다.	보필하다
③	친구가 임무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왔다.	조력하다
④	이 약은 원기를 돕는 효과가 매우 크다.	증진하다
⑤	두 회사는 그 사업을 위해 회사끼리 돕기로 했다.	제휴하다

무릇 영웅이란 죽고 나서 한층 더 길고 ㉠ **파란** 만장한 삶을 살아가며, 그런 사후 인생이 펼쳐지는 무대는 바로 후대인들의 변화무쌍한 기억이다. 잔 다르크는 계몽주의 시대에는 '신비와 경건을 가장한 바보 처녀'로 치부되었지만, 프랑스 혁명기와 나폴레옹 집권기에 와서는 애국의 ㉡ **화신**으로 추앙받기 시작했다. 민족주의의 성장과 더불어 그 숭배의 열기가 더 달아올라, 19세기 공화주의적 민족주의자들은 잔을 '프랑스의 수호자'이자 '민중의 딸'로 재창조했다. 국경을 넘어 20세기 여성 참정권자들에게 잔은 '전투적 페미니즘'의 상징이었고 한국에서는 '프랑스의 유관순 열사'로 기억되었다.

영웅에 대한 후대인들의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 **추구**하는 문제의식의 배경에는 '기억의 관리'가 부와 권력의 분배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인간의 기억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틀 내에서 형성되며,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된 특정한 사회 집단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기억의 문제는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집단적이며 사회적인 권력의 문제이다. 동시에 이는 기억과 ㉣ **표리** 관계인 망각의 문제이기도 하다.

<중략>

이때 영웅은 종종 '애국'의 덕목과 결부되었다. 한국에서도 봉건 시대에 충군의 이념에 충실했던 인물이 계몽 운동기에 들어서 구국의 영웅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박은식, 신채호 등 개화기 지식인들이 '민족정신'에 눈뜨면서 재발견한 이순신이나 을지문덕과 같은 영웅은 이제 '충군'이 아닌 '애국'을 ㉤ **지상** 과제로 삼는다. 이 같은 근대의 영웅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의 '국민'으로 묶어 주는 상상의 원천이 되었다. 이렇게 영웅은 구성된 모두를 상하, 수평 관계 속에서 매개하고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미디어였다.

4. ㉠~㉤의 사전적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4

- ① ㉠: 사람의 생활이나 일의 진행이 극절과 시련이 많고 변화가 심함.
- ② ㉡: 분을 받을 만한 대상.
- ③ ㉢: 근본까지 깊이 캐어 들어가 연구함.
- ④ ㉣: 사물의 겉과 속 또는 안과 밖을 통틀어 이르는 말.
- ⑤ ㉤: 가장 높은 위.

고전 시대에는 반복이 악곡의 형식을 결정하는 요소로 사용된다. 이 시대에 널리 쓰인 소나타는 주제가 다른 여러 악장이 음악적 대조를 이루는데, 마지막 악장은 첫 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음악으로 구성된다. 마지막 악장의 이런 성격을 표현하는 데에는 론도 형식이 적합하다. 이 형식은 악장의 주제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 **사이사이에** 이와 대조되는 새로운 주제들을 삽입하는 방식이다.

5. ㉠은 단어의 반복을 통해 특정한 의미 효과를 나타낸다. 다음 중 ㉠의 효과와 유사한 것은?5

- ① 발을 옮겨 놓을 때마다 **걸음걸음** 치마폭이 너풀거린다.
- ② 시간이 없으니까 **대강대강** 급한 일부터 끝내자.
- ③ 가뭄으로 논밭이 **바싹바싹** 타들어 간다.
- ④ 노랫소리가 **멀리멀리** 울려 퍼진다.
- ⑤ 곶간을 곡식으로 **가득가득** 채웠다.

반론권 청구는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에 할 수 있으며, 두 기관에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이때 반론권은 해당 언론사의 잘못이나 기사 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 언론 전문가들은 일부 학자들의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관련된 분쟁은 법정 밖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반론권 제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모두 ㉠ **만족할** 수 있도록 중재의 합의율과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6. 밑줄 친 단어 중, ㉠의 의미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6

- ① 선을 본 사람이 마음에 **차지** 않았다.
- ② 엇그제 비가 **흡족히** 와서 가뭄이 해소되었다.
- ③ 그는 자기 능력에 **상당한** 대우를 받고 기뻐했다.
- ④ 철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았다.
- ⑤ 형의 말을 들은 삼촌의 얼굴이 그리 **탐탁해** 보이지 않는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에이젠슈테인은 여기서 한자의 구성 원리에 주목한다. 한자의 육서(六書) 중 그가 주목한 것은 상형 문자와 회의 문자다. 상형 문자는 사물의 형태를 본뜬 문자다.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형태를 본떠서 재현할 수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재현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휴식’과 같이 추상적인 개념은 상형 문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때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회의 문자다. 회의 문자 ‘설 휴(休)’는 ‘사람 인(人)’과 ‘나무 목(木)’이 결합된 문자다. 이 두 문자를 결합하면 ‘휴식’이라는 추상적 의미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휴식’이란 말의 의미는 ‘人’에도 ‘木’에도 들어 있지 않다. **㉠ 두 개의 문자가 결합되면서 두 문자의 단순한 총합이 아닌 새로운 차원이 열리며**, 이를 통해 추상적인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에이젠슈테인이 회의 문자에서 주목한 지점이다.

7. 문맥상 ㉠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표현이 아닌 것은?㉡

- ① 선생님은 얼굴을 익히려고 그 학생을 유심히 바라 보았다.
- ② 나불거리는 아이들의 입방아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
- ③ 네 이야기는 모순이 있어 잘 이해할 수가 없다.
- ④ 그 이야기를 듣자 모두들 배꼽을 쥐었다.
- ⑤ 그는 개밥에 도토리 신세가 되었다.

2010학년도 9월

그러면, 목표치를 주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학습할까? 목표치가 없을 때는 학습 데이터로 주어진 입력 특징들의 유사성을 찾아 군집화한다. 이와 같이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는 학습을 무감독 학습이라고 한다. 예컨대 위 그림에서 네 개의 필기체 숫자에 대한 입력 특징만 주어지면, 무감독 학습은 비슷한 입력 특징을 가진 숫자들을 **㉢ 모아** ‘5’ 또는 ‘0’에 대해 군집화하는 함수를 만든다. 무감독 학습을 통해 올바르게 학습하였다면, 실험 데이터는 ‘5’의 군집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된다.

8. 문맥상 ㉢와 바꾸어 쓸 수 있는 한자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52%)

- ① 취합(聚合)하여
- ② 융합(融合)하여
- ③ 조합(組合)하여
- ④ 규합(糾合)하여
- ⑤ 결합(結合)하여

2011학년도 6월

그러나 세잔의 생각은 달랐다. “모네는 눈뿐이다.” 라고 평했던 그는 그림의 사실성이란 우연적 인상으로서의 사물의 외관보다는 ‘그 사물임’을 드러낼 수 있는 본질이나 실재에 더 다가감으로써 **㉤ 얻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세잔이 그린 과일 그릇이나 사과를 보면 대부분의 형태는 실물보다 훨씬 단순하게 그려져 있고, 모네의 그림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부자연스러운 윤곽선이 둘러져 있으며, 원근법조차도 정확하지 않다. 이는 어느 한순간 망막에 비친 우연한 사과의 모습 대신 사과라는 존재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을 포착하려 했던 세잔의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9. 문맥상 ㉤와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 ① 습득(習得)하게
- ② 체득(體得)하게
- ③ 취득(取得)하게
- ④ 터득(擻得)하게
- ⑤ 획득(獲得)하게

2011학년도 수능

틸리우스는 이 현상의 원인에 관련된 논쟁을 접어 두고, 당시 가장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모아 놓은 알폰소 표에 제시된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하자고 했다. 그 값은 365일 5시간 49분 16초였고, 이 값을 채용하면 새 역법은 율리우스력보다 134년에 하루가 짧아지게 되어 있었다. 틸리우스는 연도가 4의 배수인 해를 **㉠ 윤년으로** 삼아 하루를 더하는 율리우스력의 방식을 받아들여, 100의 배수인 해는 평년으로, 400의 배수인 해는 다시 윤년으로 하는 규칙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것은 1만 년에 3일이 절기와 차이가 생기는 정도였다. 이리하여 그레고리력은 과학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 특성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새 역법은 종교적 필요를 떠나 일상생활의 감각과도 잘 맞아서 오늘날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10. ㉠의 ‘으로’ 와 쓰임이 가장 가까운 것은?11

- ① 이 안경테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가볍다.
- ② 그 문제는 가능하면 토론으로 해결하자.
- ③ 그가 동창회의 차기 회장으로 뽑혔다.
- ④ 사장은 간부들을 현장으로 불렀다.
- ⑤ 지난겨울에는 독감으로 고생했다.

2012학년도 9월

우리는 영화를 볼 때, 등장인물이 차에 탄 뒤 바로 다음 장면에서 목적지에 내리는 것에 대해 의아해하지 않는다. 그가 복잡한 도심에서 주차할 곳을 우연히, 그리고 매우 쉽게 찾는 장면에 대해서도 **㉠**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실상 어느 관객도 그와 함께 차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이야기의 비본질적인 부분을 **㉢** 배제하는 영화상의 생략을 기꺼이 수용한다. 극적인 전개를 위해 극단적인 사건을 설정하거나 연인이 이별하는 장면에서 작중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애절한 음악을 삽입하는 것, 카메라의 움직임이 유발하는 현장감과 정서 또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우리가 흔히 영화를 사실적이라고 할 때, 그것은 영화의 재현 방식에 반응해서 영화 속 내용을 현실처럼 보는 데에 동의함을 뜻한다. 영화 속 내용은 실제 현실과 같지 않다. 우리는 영화가 현실의 복잡성을 똑같이 **㉡** 모방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영화 역시 굳이 그러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이렇게 관객과 감독 사이에 맺어진 암묵적 합의를 ‘영화적 관습’이라고 한다. 영화적 관습은 영화사 초기부터 확립돼 온 산물로, 관객과 감독의 소통을 돕는다. 반복적인 영화 관람 행위를 통해 관객은 영화적 관습을 익히고, 감독은 그것을 활용하여 관객에게 친숙함을 제공한다.

확립된 관습을 무시하거나 그것에 도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누벨바그 감독들은 고전적인 영화 관습을 파괴하며 영화의 현대성을 주도하였다. 이들은 불필요한 사건을 개입시켜 극의 전개를 느슨하게 만들거나, 단서나 예고없이 시간적 순서를 뒤섞어 사건의 인과 관계를 **㉣** 교란하기도 했다. 이들은 자기만족적이고 독창적인 미학적 성취를 위해 영화의 고전적인 관습을 파괴하였다.

상업 영화에서도 부분적인 관습 비틀기가 **㉤** 수시로 일어난다. 이는 흥행을 목적으로 오락적 쾌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누벨바그의 관습 파괴와는 차이가 있다. 가령, 근래 액션 영화의 감독들은 악당의 죽음으로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생각되는 순간, 악당을 다시 살려 내어 갈등을 또 한 번 증폭하는 장면을 보여 준다. 처음 이러한 관습 비틀기를 접한 관객들은 당혹스러웠겠지만, 일단 여기에 익숙해지면 느긋하게 ‘악당의 귀환’을 기대하게 된다.

파괴된 관습이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또 하나의 관습으로 자리를 잡는다. 따라서 영화적 관습은 고정된 규범일 수 없으며,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1.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1

- ① ㉠ :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
- ② ㉡ :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함.
- ③ ㉢ : 다른 것을 본뜨거나 본받음.
- ④ ㉣ : 마음이나 상황 따위를 뒤흔들어서 어지럽고 혼란하게 함.
- ⑤ ㉤ : 일정하게 정하여 놓은 때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름.

라캉은 '거울 단계 이론'을 통해 자아의 자율성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밝히고자 했다. 그에 따르면 거울 단계란 어린아이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신체 이미지를 매개로 해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외적 세계를 구성하는 단계이다. 대략 생후 6~18개월 정도의 아이는 처음에 거울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를 외부 대상과 구별하지 못한다. 모든 것이 카오스처럼 하나로 ㉔뒤엉켜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아이는 자신의 이미지를 알아보게 되고 자신의 이미지에 매료되어 그것을 붙잡으려 하고 떠날 줄을 모른다. 일견 단순해 보이는 거울 이미지는 이후 모든 심리 발달 단계에서 원형으로 작용한다.

12. ㉔에 쓰인 '뒤-' 와 의미가 유사한 것은?12

- ① 흥분으로 뒤끓는 가슴을 진정시켰다.
- ② 중개인은 다 된 흥정을 뒤틀고 나섰다.
- ③ 이 책이 나의 세계관을 뒤바꾸어 놓았다.
- ④ 그가 이야기하면 항상 그 말을 뒤받는 사람이 있었다.
- ⑤ 물살이 밀어닥쳐 나룻배를 뒤엎는 바람에 사고가 일어났다.

2016학년도 6월 A형

(가) 우리는 일상에서 '약자를 돕는 것은 옳다'와 같은 도덕적 판단을 한다. 이렇게 구체적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 문제를 다루는 것이 규범 윤리학이라면, 옳음의 의미 문제, 도덕적 진리의 존재 문제 등과 같이 규범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원칙에 대해 다루는 것은 메타 윤리학이다. 메타 윤리학에서 도덕 실재론과 정서주의는 '옳음'과 '옳지 않음'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과 도덕적 진리의 존재 여부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펼친다.

(나) 도덕 실재론에서는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진리를 과학적 판단 및 과학적 진리와 마찬가지로 본다. 즉 과학적 판단 이 '참' 또는 '거짓'을 ㉔판정할 수 있는 명제를 나타내고 이때 참으로 판정된 명제를 과학적 진리라고 부르는 것처럼, 도덕적 판단도 참 또는 거짓으로 판정할 수 있는 명제를 나타내고 참으로 판정된 명제가 곧 도덕적 진

리라고 ㉔규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덕 실재론에서 주장하듯, '도덕적 진리'라면, 그것이 참임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이라는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성질을 도덕적 판단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다) 한편 정서주의에서는 어떤 도덕적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 옳음이나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이라는 성질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도덕적 판단도 참 또는 거짓으로 판정되는 명제를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정서주의에서는 '옳다' 혹은 '옳지 않다'는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만 도덕 실재론과 달리 과학적 진리와 같은 도덕적 진리는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그렇다면 정서주의에서는 옳음이나 옳지 않음의 의미를 무엇으로 볼까? 도덕적 판단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감정과 태도가 곧 옳음과 옳지 않음이라고 한다. 즉 '도덕적 판단'은 도덕적 판단에 대한 승인 감정을 표현한 것이고, '도덕적 판단'은 도덕적 판단에 대한 부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한다.

(라) 이런 정서주의에서는 도덕적 판단이 윤리적 행위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도덕 실재론보다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다. 윤리적 행위의 동기 부여를 설명할 때 도덕적 판단이 나타내는 승인 감정 또는 부인 감정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승인 감정은 어떤 행위를 좋다고 여기는 것이고 그것이 일어나길 욕망하는 것이기에 결국 그것을 해야 한다는 동기 부여까지 직접 연결된다는 것이다. 부인 감정도 마찬가지로 작동한다. 이에 비해 도덕 실재론에서는 도덕적 판단 이외에도 인간의 욕망과 감정에 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컨대 '약자를 돕는 것은 옳다'에 덧붙여 '사람들은 약자가 어려운 처지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와 같이 인간의 욕망과 감정에 대한 법칙을 추가해야 한다. 그래야만 도덕 실재론에서는 약자를 돕는 윤리적 행위를 해야겠다는 동기 부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의 욕망과 감정에 대한 법칙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그것 없이도 윤리적 행위의 동기 부여를 설명할 수 있는 정서주의는 도덕 실재론에 비해 높이 평가된다. 또한 옳음과 옳지 않음의 의미를 승인 감정과 부인 감정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정서주의에 따르면 사람들 간의 도덕적 판단의 차이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로 ㉔합의하지 못하는 의견 차이에 대해서도 굳이

어느 한 쪽 의견이 틀렸기 때문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이 서로 감정과 태도가 다를 뿐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은 도덕적 판단의 차이로 인한 극단적인 대립을 피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 하지만 옳음과 옳지 않음을 감정과 동일시하는 정서주의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㉔** 제기될 수 있다. 첫째, 감정이 변할 때마다 도덕적 판단도 변한다고 해야 하지만, 도덕적 판단은 수시로 바뀌지 않는다. 둘째, **㉑** 감정은 아무 이유 없이 변할 수 있지만 도덕적 판단은 뚜렷한 근거 없이 바뀔 수 없다. 셋째, 감정이 없다면 ‘도덕적으로 옳음’과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도 없다고 해야 하지만, ‘도덕적으로 옳음’과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보편적 인식과 **㉓** 배치된다.

13. ㉑~㉔의 사전적 뜻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13)

- ① ㉑ : 판별하여 결정함.
- ② ㉒ : 규칙에 의해 일정한 한도를 정함.
- ③ ㉓ : 서로 의견이 일치함.
- ④ ㉔ : 의견이나 문제를 내어 놓음.
- ⑤ ㉔ : 서로 반대되어 어긋남.

2010년 10월

우치가 재주를 행하는데, 이윽고 천지가 자욱하며 지척을 분별치 못하게 되었다. 임금이 괴이히 여기다가 주위를 둘러보니, 갑자기 맑은 바람이 일어나며 구름과 안개가 걷히고 날씨가 명랑하였다. 그제야 자세히 보니 명경창과 가운데 자신이 한 조각의 배를 타고 앉았는데, 배 가는 곳을 알 수가 없었다. **㉑ 임금이 크게 놀라 생각하기를, ‘이 몸이 어찌하여 이곳에 왔으며, 배에는 사공도 없으니 장차 어디로 갈꼬?’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나서 천지를 분간치 못하였다. 그런데다 풍랑까지 심하여 배가 물결을 따라 물속으로 거의 잠기게 되었다.** 임금은 정신이 혼미하여 넋이 몸에 붙지 아니하니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하릴없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하기를,

- 작자 미상, 「전우치전」 -

14. ㉑에서 임금이 처한 상황을 알맞게 표현한 것은?14)

- ① 백척간두(百尺竿頭) ② 풍비박산(風飛雹散)
- ③ 천재일우(千載一遇) ④ 고군분투(孤軍奮鬪)
- ⑤ 흥진비래(興盡悲來)

2013년 3월 A형

여유문은 이런 최척을 의롭게 여기고 다시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해 겨울, 여유문이 병들어 죽었다. 또다시 **㉑** 의탁할 곳이 막막하게 된 최척은 강호(江湖)를 떠돌며 두루 명승지를 유람하였다.

15. ㉑과 같은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15)

- ① 사고무친(四顧無親) ② 다기망양(多岐亡羊)
- ③ 전화위복(轉禍爲福) ④ 좌고우면(左顧右盼)
- ⑤ 호사다마(好事多魔)

2013년 7월 B형

[옛중모리]

관공은 화용도 좁은 길에 조조를 살려주니 인후(仁厚)하신 관공 **㉑** 이름 천추에 빛나더라. 그 뒤야 뉘가 알리. 더질 더질.

- 작자 미상, 「적벽가(赤壁歌)」 -

16. ㉑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16)

- ① 유방백세(流芳百世) ② 학수고대(鶴首苦待)
- ③ 금의환향(錦衣還鄉) ④ 타산지석(他山之石)
- ⑤ 상전벽해(桑田碧海)

창인 '클리어스토리'를 뚫어 성당 안으로 많은 빛을 들어오게 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창에는 다채로운 색채의 '스테인드글라스'를 시공했는데, 빛을 굴절 투과시켜 신비감을 ㉔ 부각하였다. 이후 고딕 성당은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 끊임없이 더 높은 곳을 지향하게 된다.

로마네스크 양식은 십자군 전쟁이 발발해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각지의 수도원으로 순례객들이 모여들던 때에 탄생했다. 그들은 웅장하게 지어진 성당을 순례하며 신의 권위와 장엄함을 느꼈다. 한편 고딕 양식은 농촌에서 도시로 삶의 터전을 옮긴 이주민들이 혼란과 불안을 경험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고딕 시대의 이주민들은, 비례의 법칙을 거스르며 하늘 높이 수직으로 솟아올라 빛으로 가득해진 도시의 성당에서 신의 존재를 체험하며 고통스러운 현실을 ㉕ 위로 받고자 했다. 성당 순례를 통해 신을 느끼며 현실에서의 고통을 해소하고자 했던 로마네스크 시대의 사람들처럼 고딕 시대의 사람들도 신에게 더욱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 했던 것이다. 결국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에서 초월적 세계에 대한 중세 사람들의 종교적 열망을 읽어낼 수 있다.

19. ㉔~ ㉕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 옳고 그름을 이유를 들어 밝힘.
- ② ㉔: 명백하게 나타나거나 나타냄.
- ③ ㉔: 연구하여 새로운 안을 생각해 냄.
- ④ ㉔: 어떤 사물을 특징지어 두드러지게 함.
- ⑤ ㉔: 위로하고 어루만져 달랠

2015년 4월 A형

그래서 고대 예술의 주된 대상인 신화나 역사 혹은 성서 속 이야기들을 그림의 소재로 삼았으며, 그것을 서사의 차원이 아닌 시의 차원으로 전환시키면서 절제되고 압축된 표현을 사용했다. 이를 위해 감상자의 시선을 흐트러뜨릴 가능성이 있는 요소는 철저히 배제했다. 또한 작품 속의 인물들을 표현할 때,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기 위해 고대 조각상 중에서 자신의 표현 의도에 ㉖ 맞는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상을 골라 인위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작품의 구성에 있어서도

화면은 오로지 이성의 법칙에 입각한 균형과 대칭, 선이나 도형 등을 활용한 기하학적 공간 구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짜임새 있는 안정적인 구도를 갖추려고 했다. 이는 자연의 영원불변한 본질을 조화와 질서라고 생각하여 이를 그림에서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20. ㉖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 ① 이 안경이 바로 아까 그 학생 것이 맞다.
- ② 이 식당의 음식 맛은 내 입에 잘 맞는다.
- ③ 그녀는 아무리 보아도 내게 잘 맞는 것 같다.
- ④ 과연 그 답이 맞는지 더 생각해 보기로 하자.
- ⑤ 나의 의견이 그의 생각과 맞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2015학년도 10월 A형

일반적으로 헌법이란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 근본적 규범으로, 국가 구성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합의이자 국가를 구성하는 최상위 법규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법적 안정성이 중시된다. 그러나 변화하는 정치적·경제적 상황에 대응하여 규범력을 유지하거나, 질서 정연하고도 집약적으로 헌법을 구성하기 위해 헌법이 개정되기도 한다.

헌법의 개정이란 헌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에 따라 헌법의 특정 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추가함으로써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기존의 헌법을 소멸시킬 뿐만 아니라 그 헌법의 토대가 되어 있는 헌법 제정 권력까지도 배제하는 헌법의 파기와는 ㉗ 다르다.

헌법의 개정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입장이 다른데, 이는 대체로 개정 무한계설과 개정 한계설로 ㉘ 나뉜다. 개정 무한계설은 헌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를 밟으면 어떠한 조항이나 사항이더라도 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정 무한계설에서는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 사이의 틈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 개정을 무제한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헌법 제정 권력과 헌법 개정 권력의 구별을 부인하여 헌법 최고의 법적 권력은 헌법 개정 권력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현재의 헌법 규범이나 가치에 의해 장래의 세

대를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밝힌다**. 그러나 개정 무한계설은 법 규범이 가지는 실질적인 규범력의 차이는 외면한 채 헌법 개정에 있어서 형식적 합법성만을 절대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개정 한계설은 헌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를 ㉡**따를지라도** 특정한 조항이나 사항은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정 한계설에서는 헌법 제정 권력과 헌법 개정 권력을 다른 것으로 구별하여 헌법 개정 권력은 헌법 제정 권력의 소재(所在)를 변경하거나 헌법 제정 당시의 국민적 합의인 헌법의 기본적 가치 질서를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 헌법 제정자가 내린 근본적 결단으로서의 헌법은 개정 대상이 될 수 없다거나, 헌법 위에 존재하는 자연법*의 원리에 ㉢**어긋나는** 헌법 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헌법의 국민 주권 원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장은 헌법 개정 절차에 의해서도 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자연법 : 인간 이성을 통하여 발견한 자연적 정의 또는 자연적 질서를 사회 질서의 근본 원리로 생각하는 보편타당한 법.

서 벗어나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가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동시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하였다. 이처럼 시간의 여러 시점(時點)들이 동시적으로 존재한다는 치머만의 생각은 그가 다원적 사고를 추구했음을 보여준다. 그는 하나의 시간 대신 여러 개의 시간 층을 병치시켜 복합적인 시간성을 드러냈다.

복합적인 시간성은 그의 '다원적 작곡 기법'으로 구현되었다. 그는 이 기법을 음악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시간의 층이 ㉤**겹친**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자신의 대표작인 '병사들'에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음악가들의 악곡 일부를 그대로 자신의 작품에 가져다 쓰는 콜라주 기법을 ㉥**써서** 서로 다른 시간의 층을 동시에 보여 주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서로 다른 독립적인 박자와 템포를 동시에 한 작품에 사용하여 서로 다른 시간의 층을 더욱 도드라지게 하였다. 그 결과 시간의 순차적인 진행은 해체되어 여러 시간이 복잡하게 엉키게 되었다. 이를 두고 치머만은 '모든 음악적 사건들의 동시대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작품 속에 특정한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 후대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주의적 사고에 영향을 주었다.

20세기 현대 음악에서 새로운 차원의 시간성을 보여 주는 또 한 명의 인물은 케이지이다. 그는 음악의 시간성 측면에서 전통적 개념을 송두리째 흔드는 새롭고 흥미진진한 시도를 보여 주었다. 그의 대표작 '4분 33초'에서 연주자는 무대에 등장하여 4분 33초라는 시간 동안 한 음도 연주하지 않는다. 그동안 그 시간은 예기치 않은 관객들의 기침 소리, 종이 만지는 소리, 웅성거리는 소리 등 다양한 소리들로 채워진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그는 작가의 의도나 목적에 의해 구조화된 시간성, 박자 구조에 따라 나타난 음악의 예측 가능한 시간성이라는 전통적 의미의 시간성을 부정하는 '우연성의 음악'을 구현하였다. 이는 음악의 시간이 전통적 음악에서처럼 음악가의 논리적 조정을 통해서만 구성되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케이지는 그의 작품에서 유일하게 한 번만 존재하는 음악의 시간성을 표현했다. 이러한 그의 음악은 비의도적이려는 의도 외에는 아무 의도 없이 만든 음악으로, 완성보다는 과정에 치중하는 비결정성

21. 문맥상 ㉠~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상등하다 ② ㉡ : 분포된다
- ③ ㉢ : 피력한다 ④ ㉣ : 승계할지라도
- ⑤ ㉤ : 소급되는

2015학년도 10월 B형

음악에서는 시간이 중요하다. 음악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이다. 전통적 음악에서는 시간이 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은 선적인 것으로 어떤 목적을 향해 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점에서 목적론적 시간성으로 일컬어진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 음악 미학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목적론적 시간성에서 ㉠**벗어난** 음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음악을 보여 준 대표적인 예술가로 치머만과 케이지를 들 수 있다.

치머만은 과거, 현재, 미래가 우주적 차원에서는 연속성을 띠며 진행하지만 정신적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에 이르러, 시간을 '공' 모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이는 시간이 선적인 진행에

을 떠는 것이었다. 비결정성을 떠는 음악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실험적이며, 똑같이 반복될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유일하다. 지금까지 음악을 시간의 연속성으로 이해했다면, 이제 그 연속성은 완전히 뒤죽박죽되었다. 음악의 시간성이 작품의 구조와 관련이 있는 만큼, 그의 음악에서는 전통적 시간성이 ㉔무너졌다고 볼 수 있다.

22. ㉔~ ㉔를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 탈피한 ② ㉔: 변모할 ③ ㉔: 중첩된
- ④ ㉔: 활용하여 ⑤ ㉔: 와해되었다고

이영준T ‘고난도 시리즈’ 5월 중 론칭 예정

1. 고난도 독서(248문제)

- (1) 수능, 모의평가
- (2) 시도교육청 모의고사
- (3) LEET 지문

2. 고난도 문학(약 174문제)

- (1) 수능, 모의평가
- (2) 시도교육청 모의고사

3. 고난도 화작문(약 70문제)

- (1) 수능, 모의평가
- (2) 시도교육청 모의고사

순서대로 론칭 예정, 교재만 구입 가능

단, 강의용 교재이기 때문에 정답은 모두 표기되어 있지만, 해설은 일부 문제만 있습니다. 교재 구입 후에 해설이 필요할 경우, 쪽지 등으로 문의를 하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답 해설]

1) ⑤ (66%)

⑤ 인사치레 : 성의 없이 겉으로만 하는 인사. ≒ 인사뒹음. 『인사치레로 하는 말/다른 사람들이 인사치레로 좀 더 있기를 권했으나 허정우는 몸이 불편하다고 사양했다. <<김원일, 불의 제전>>

[오답 피하기]

① 빈-말 : 실속 없이 헛된 말. ≒ 공말(空-) [1] 허설02(虛說) [1]. 『빈말이라도 고맙다./제 말을 빈말로 여기지 마십시오./용철이가 아무래도 억울하다는 투로 투덜거렸으므로 천덕은 빈말로라도 무어라 위로해 줄 농담을 찾던 중이었다. <<홍성암, 큰물로 가는 큰 고기>>/그동안 진 신세를 고마워하며 빈말로라도 어서어서 돈 벌어서 은혜를 갚겠노라 사례하고 떠난 식구들도 있었고... <<박완서, 미망>>

② 너스레 : 수다스럽게 떠벌려 늘어놓는 말이나 짓. 『너스레를 놓다/너스레를 떨다/너스레를 부리다/너스레를 피우다/너스레를 치다/그의 걸쭉한 너스레에 우리 모두 크게 웃었다./김치걸이가 대변에 기고 나오며 술대접까지 하겠다고 너스레가 흐드러지자 두 사람은 어리둥절했다. <<송기숙, 녹두 장군>>/설령 대단치 않은 것도 그 너스레가 너무 재미있어서 모두 그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죠. <<이영치, 호린 날 황야에서>>

③ 생트집 : 아무 까닭이 없이 트집을 부림. 또는 그 트집. 『생트집을 쓰다/생트집을 잡다/불량배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생트집을 걸곤 했다./어린애가 자꾸 생트집을 부리자 엄마는 아이에게 야단을 쳤다./동생은 생트집이 나서, 자다 말고 짜증을 부리곤 했다./왜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생트집을 잡고 그러니?

④ 어깃장 : 짐짓 어기대는 행동. 『어깃장을 놓다/사람이란 늠으면 대개의 경우 어깃장도 놓고 이기적으로 된다고들 한다. <<박경리, 토지>>

2) ①(48%)

‘애처롭다’는 ‘가엾고 불쌍하여 마음이 슬프다’는 뜻의 형용사로 ‘애처롭게, 애처롭지, 애처롭고, 애처로운, 애처로워, 애처로울’ 등 다양한 어미와 결합하여 활용하므로 한정된 어미와 결합하는 용언이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② ‘허구하다’는 ‘날, 세월 따위가 매우 오래다’는 뜻의 단어로 주로 ‘허구한’ 꼴로 쓰인다. 즉, ‘허구하고, 허구하니, 허구하지, 허구하게’ 등의 꼴로 활용하지 않는다.

③ ‘막다르다’는 ‘더 나아갈 수 없도록 앞이 막혀 있다’는 뜻의 단어로 주로 ‘막다르’ 꼴로 쓰인다. 즉 ‘막다르고, 막다르니, 막다르지, 막다르게’ 등의 꼴로 활용하지 않는다.

④ ‘서슴다’는 ‘않다’, ‘말다’ 따위의 부정어와 함께 쓰여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망설이다’는 뜻의 단어로 주로 ‘서슴지’ 꼴로 쓰인다. 즉 ‘서슴고, 서슴게, 서슴으니’ 등의 꼴로 활용하지 않는다.

⑤ ‘가공(可憐)하다’는 ‘두려워하거나 놀랄 만하다’는 뜻의 단어로 주로 ‘가공할’ 꼴로 쓰인다. 즉 ‘가공하고, 가공하게, 가공하지, 가공하니’ 등의 꼴로 활용하지 않는다.

3) ①(45%)

정답해설 : ‘돕다’의 다양한 유의어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수재 의견금을 내서 수재민을 도왔다.’에서의 ‘돕다’는 ‘빈민, 이재민에게 금품을 주어 구제하다’의 의미를 지닌 ‘구휼(救恤)’이 적절하다. ‘구명하다’는 ‘목숨을 구하다’는 의미이다.

4) ②(32%)

정답해설 : ⑥의 ‘화신(化身)’은 ‘어떤 추상적인 특질이 구체화 또는 유형화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애국의 화신’은 애국이라는 특질이 구체화된 대상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파란만장’은 곡절과 시련이 많음을 나타낸다. ③ ㉠은 탐구한다는 맥락적 의미를 지니므로 ‘근본까지 깊이 캐어 들어가 연구함’으로 그 의미가 파악된다. ④ ‘표리’는 ‘겉과 속’을 의미한다. ⑤ 뒤의 ‘과제’란 말이 있음을 고려하면 ㉡가 ‘가장 높은 위’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5) ①(59%)

정답 해설 : ‘사이사이’는 ‘사이’라는 어휘가 반복되면서 ‘틈이 있을 때마다 또는 틈이 있는 데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걸음걸음’은 ‘걸음’을 반복함으로써 ‘걸음을 걸을 적마다, 걸음마다’라는 의미를 얻게 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또 ‘사이사이’에 담긴 ‘여러 개의 사이’라는 복수적 의미로 표현될 수 있듯이 ‘걸음걸음’도 ‘여러 걸음들’이라는 복수적 의미로 표현될 수 있다.

[오답피하기] 나머지는 ‘-마다’와 결합될 수 있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고, ‘대강들’(×), ‘바싹들’(×), ‘멀리

들'(x), '가득들'(x)처럼 복수적 의미로 표현되지도 않는다.

6) 답 ③ (54%)

정답해설 : ㉠은 '마음에 들다, 차다'의 의미이다. ㉡ '상당한'은 '어느 정도에 어울리는, 알맞은, 걸맞은'의 개념으로 ㉠의 유의어로 볼 수 없다. 정

[오답피하기] ① '마음에 들다'라는 의미 ② '모자람 없이 마음에 들다'라는 의미 ④ '마음에 흡족하다, 마음에 들다'라는 의미 ⑤ '마음에 들어 흡족하다'라는 의미

7) 정답 ①(36%)

정답해설 : ㉠의 의미를 파악한 후, 그것과 관련된 다른 사례의 적절성을 판단해 보는 문제이다. ㉠은 각각의 의미를 지닌 두 문자가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회의 문자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답지 역시, 두 개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만나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사례여야 하는데, '얼굴을 익히다'는 '여러 번 보아서 눈에 익거나 친숙하다'는 의미로 '익히다'라는 의미가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사례라 할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② 곡식 따위를 찢거나 뺏는다는 의미의 '방아'가 '입'이라는 단어와 결합하여 '어떤 사실을 화제로 삼아 이러쿵저러쿵 쓸데없이 입을 놀리는 일'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낸 사례이다. ③ 모순(矛盾)은 '창'과 '방패'라는 의미의 단어가 만나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낸 사례이다. ④ '배꼽'과 '쥐다'가 결합하여 '웃음을 참지 못하고 배를 움켜잡고 크게 웃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⑤ '개밥'과 '도토리'가 만나서 형성된, '개밥의 도토리'는 '따돌림을 받아서 여럿의 축에 끼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관용어로 쓰인다.

8) ①

정답해설 : 문맥으로 보아 ㉠은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것을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한데 합친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취합(聚合)'은 '모여서 합친다. 또는 한데 모아서 합친다.'는 뜻으로 ㉠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융합(融合) : 여럿이 녹아서 하나로 합침. ③ 조합(組合) : 여럿을 한데 모아 한 덩어리로 짬. ④ 규합(糾合) : 일을 꾸미려고 사람을 모음. ⑤ 결합(結合) : 둘 이상이 서로 관계를 맺고 합쳐서

하나가 됨.

9)[정답] ⑤ [1점](42%)

정답해설 : ㉠의 '얻다'는 '구하거나 찾아서 가지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얻어 내거나 얻어 가짐'의 의미를 가진 '획득(獲得)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습득(習得)'은 '학문이나 기술 따위를 배워서 자기 것으로 함'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② '체득(體得)'은 '몸소 체험하여 알게 됨. 또는 뜻을 깊이 이해하여 실천으로써 본뜻'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③ '취득(取得)'은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짐'의 의미를 ④ '터득(擻得)'은 '깊이 생각하여 이치를 깨달아 알아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10) ③ (68%) 정답해설 : ㉠은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로 사용되었다. '그가 동창회의 차기 회장으로 뽑혔다.'라는 문장의 '으로' 역시 이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를 나타내는 조사로 사용되었다. ② 어떤 일의 방법이나 방식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④ 움직임의 방향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⑤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조사이다.

11) ①(69%)

정답해설 : '이의(異議)'라는 말은 다른 의견이나 논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의를 달다/이의를 제기하다/이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드십시오./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다음 안건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등과 같이 사용된다.

12) ①(52%)

접두사 '뒤-'는 '몹시, 마구, 온통'의 뜻을 더하는 경우와 '뒤집어', '반대로'의 뜻을 더하는 경우로 대별된다. 그런데 ㉠과 ①의 경우는 전자의 의미로, ②~⑤번의 경우는 후자의 의미로 쓰였다.

13) ②(41%)

정답해설 : '규정(規定)'의 사전적 뜻풀이는 '내용이나 성격, 의미 따위를 밝혀 정함.'이다. '규칙에 의해 일정한 한도를 정함.'은 '규제(規制)'의 사전적 뜻풀이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① '판정(判定)'의 사전적 뜻풀이는 '판별하여 결정함.'이다. ③ '합의(合意)'의 사전적 뜻풀이

는 ‘서로 의견이 일치함.’이다. ④ ‘제기(提起)’의 사전적 뜻풀이는 ‘의견이나 문제를 내어놓음.’이다. ⑤ ‘배치(背馳)’의 사전적 뜻풀이는 ‘서로 반대로 되어 어그러지거나 어긋남.’이다.

14) ①(23%)

㉠은 임금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상황이다. 따라서 ① 백척간두(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몹시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을 이르는 말.)를 통해 그 상황을 표현할 수 있다.

15) ①(55%)

최적은 그동안 의지하며 살아가던 여유문이 죽자 의탁할 곳이 막막해진다. 이러한 최적의 상황은 사고무친(四顧無親: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음.)과 가장 유사하다.

[오답풀이] ② 다기망양(多岐亡羊) : 갈림길이 많아 잃어버린 양을 찾지 못한다는 뜻으로 두루 섭렵하기만 하고 전공하는 바가 없어 끝내 성취하지 못함을 이르는 말. ③ 전화위복(轉禍爲福) : 재앙과 화난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 ④ 좌고우면(左顧右盼) : 이쪽저쪽을 돌아본다는 뜻으로, 앞뒤를 재고 망설임을 이르는 말. ⑤ 호사다마(好事多魔) :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이 많음.

16) ①(61%)

‘유방백세’는 꽃다운 이름을 후세에 길이 전한다는 의미이므로 ①에 적합하다. ②는 간절한 기다림을 의미한다. ③은 출세하여 고향에 돌아옴을 의미한다. ④는 본이 되지 않은 남의 말이나 행동도 자신의 인격 수양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⑤는 세상일에 변천이 심함을 의미한다.

17) ①(53.4%)

‘마케팅 전략을 세우다’에서 ‘세우다’는 ‘국가나 정부, 제도, 계획 따위를 이룩하여 세우다’는 뜻의 ‘수립(樹立)하다’로 바꿀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정립(定立)하다 : ~을 정하여 세우다 ③ 설립(設立)하다 : 기관이나 조직체 따위를 만들어 일으키다. ④ 제정(制定)하다 : 제도나 법률 따위를 만들어서 정하다 ⑤ 지정(指定)하다 : ~을 가리키어 확실하게 정하다.

18) ①(41%)

함분축원(含憤蓄怨)이란 ‘분한 마음을 품고 원한을 쌓음.’이란 뜻으로, ㉠에서 부자는 양반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모욕감을 느꼈으므로 이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19)①(A, B형 : 21%)

‘입증’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증거 따위를 내세워 증명함’이다. ‘옳고 그름을 이유를 들어 밝힘’은 ‘논증’의 사전적 의미이다.

20) ⑤(68%)

㉠의 ‘맞다’는 ‘어떤 행동, 의견, 상황 따위가 다른 것과 서로 어긋나지 아니하고 같거나 어울리다.’의 뜻이므로 적절하다.

① ‘어떤 대상이 누구의 소유임이 틀림이 없다.’라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어떤 대상의 맛, 온도, 습도 따위가 적당하다.’라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모습, 분위기, 취향 따위가 다른 것에 잘 어울리다.’라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문제에 대한 답이 틀리지 아니하다.’라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21) ③(58%)

‘피력하다’는 생각하는 것을 털어놓고 말한다는 의미이다.

22) ②(59%)

‘변모’는 ‘모양이나 모습이 달라지거나 바뀔. 또는 그 모양이나 모습.’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①와 바뀌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